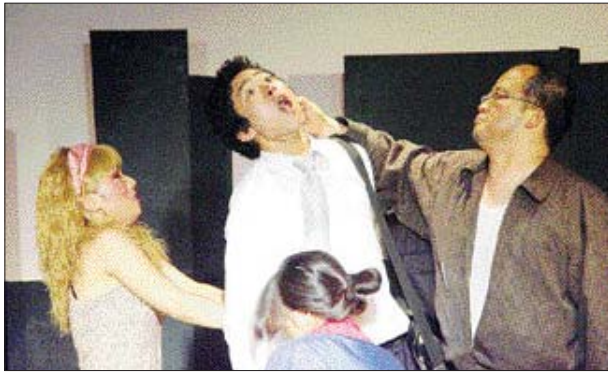


밑바닥 인생들의 애환

극단 청춘, '버스를 기다리며' 공연



극단 '청춘'이 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연극 작품 '버스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린다.

서울역에 상주하는 포주와 찰너, 영별이 소년 등을 잇따라 만난 남일은 실업난에 허덕이는 서민들과 밑바닥 인생의 애환을 들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매정한 대한민국 사회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희곡을 쓴 원광연씨 연출을 맡았으며 오설균·황민형·김은미·조현주·채희영씨 등이 출연한다. 12일 오후 8시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디자인협회에 임채형 교수



(사)광주전남디자인협회 신임 회장에 임채형 (50·조선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사진)씨가 선출됐다.

신임 임 회장은 "사회를 디자인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21세기 디자인 시대를 맞아 지역의 디자인 산업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2회 국제 캐릭터디자인 공모전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는 미키마우스, 텔레토비와 같은 세계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제2회 국제캐릭터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08 국제문화창의산업전시회'의 특별행사로 열리며 학생, 일반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8월18일~25일까지 접수한다.

출품신청서는 광주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gdc.or.kr)나 국제문화창의산업전시회 홈페이지(www.acefair.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파워 컬렉터 김창일의 안목은?

세계 미술계 '100대 컬렉터' 첫 소장품전에 세계가 주목

세계 100대 컬렉터 가운데 한 사람인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회장(56)이 처음으로 소장품전을 열어 미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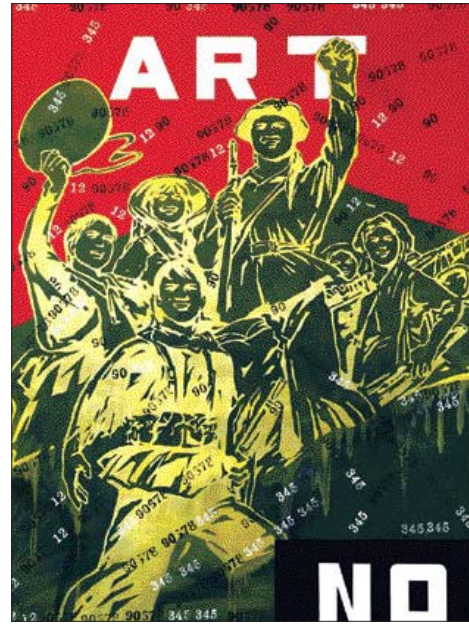
'씨킴(CI KIM)'이라는 예명의 미술 작가로도 활동 중인 김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술계의 '큰손'이다. 1년에 미술품 투자에 100억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지난 20여년간 사들인 대표 컬렉션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데미안 허스트 등 최고의 '몸값'을 받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천안 아라리오갤러리는 7월12일~8월20일까지 'The Moments of Arario'를 주제로 소장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데미안허스트, 키스헤링, 길버트와 조지, 왕광이, 유에민준, 안재



키스 헤링 작 '무제-acrobats'



왕광이 작 '대비판'

12일~8월20일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최고 몸값' 유명 작가 작품 45점 한눈에

이명, 리치카어, 데이비드살르, 토마스루프, 신디셔먼, 바네사비크로프트, 샘테일러우드 등의 총 45점이 전시된다.

우선 데미안 허스트의 초기 원형 페인팅에 속하는 2002년 작품 'Gorgeous Concentric Red Blue Hot Cold Painting'이 눈길을 끈다. 데미안 허스트는 지난해 인간의 두개골에 8천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은 '신의 사랑을 위해(For the Love of God)'를 1억달러(약 940억원)에 팔아 생존작가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한 작가이다.

또 2002년 천안 아라리오 재개관 기념으로 연 미국의 팝아트 작가 키스 헤링(1958~1990)의 개인전 때 소장하게 된 1986년작 조각 '무제-acrobats'와 아라리오에서 전시를 가졌던 중국작가 왕광이의 '대비판' 연작 등도 전시된다. 키스 헤링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벽화 작업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왕광이는 중국 최고의 팝아트 작가이다.

또 중국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유에민준의 'maze' 시리즈와 미국의 신표현주의 화가 데이비드 살르의 'Untitled Torso with Rose'도 출품됐다. 'maze'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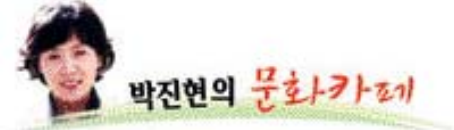
에서 영감을 받아 미로와 같은 삶을 표현한 작품이며, 'Untitled Torso with Rose'는 소용돌이와 추상과 포르노에서 차용한 여성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작품이다. 김창일 회장은 지난해 영국의 미술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한 영향력있는 세계 100대 컬렉터 87위에 올랐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순위 포함되는 등 최근 3년 연속 아트리뷰의 100위권내 컬렉터로 인정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데이비드 살르 작 '정미와 토루스(Untitled Torso with Rose)'



오쿠이 마법 통할까

"이제까지의 국제 미술계는 너무나 서유럽적이거나 혹은 미국적이었다. 예술이란 세계의 특정지역에만 존재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것이다. 제11회 카셀 도큐멘타(이하 D11)는 미술의 글로벌리즘을 재현해 낼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 8일, 세계 미술계의 이목이 독일 중북부의 소도시 카셀로 쏠렸다. 이날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전시인 카셀 도큐멘타 개막일이었다.

하지만, 'D11'이 세인들의 시선을 끈 진짜 이유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예술 감독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현 2008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쿠이는 도큐멘타 사상 최초의 비유럽 국가 출신 큐레이터였다.

또한, 오쿠이는 카셀 도큐멘타가 50년간 불문율처럼 지켜온 백인 남성 중심주의를 깨뜨린 첫 번째 흑인이었다. 여기에 유럽·미국 미술중심의 도큐멘타 전시장에 처음으로 인도와 아프리카 미술을 끌어들이는 점도 화제거리로 충분했다.

이 같은 오쿠이의 '글로벌리즘'은 비서구 미술을 미술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D11'이 거둔 최대의 성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오쿠이 감독의 파격적인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인 로버트 스토(Robert Storr)와의 논쟁은 국제미술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의 이슈'였다. 스토 감독은 베니스 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미술을 조명하는 '아프리카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오쿠이는 "77개 국가관을 설치한 베니스 비엔날레가 유독 아프리카관 대륙 전체를 하나의 '아프리카관'으로 몰아넣어 차별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오쿠이는 "77개 국가관을 설치한 베니스 비엔날레가 유독 아프리카관 대륙 전체를 하나의 '아프리카관'으로 몰아넣어 차별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프리카 미술에 그의 열정은 현대미술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제시했다며 미술계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7회 행사는 스타작가도 적고 부대 프로그램도 없는, 말 그대로 '무(無)비엔날레'로 치러진다. 특히 늘 가을에는 삶이 좋은 '아시아의 넘버 1'을 놓고 상하이, 싱가포르, 시드니 비엔날레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매년 비엔날레의 관행을 깨뜨려 세계 미술계를 사로잡은 오쿠이의 마법이 광주에서도 통할지 자못 궁금하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and movie poster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Hami Cinema, and Zeil Cinema.